

# 오월 연극 산증인 '토박이' 동명동에 새 등지

15일 민들레 소극장 개관 잔치  
박효선 전집 출판기념회도 열려  
12~22일 오월극 '모란꽃' 무대



박효선 전집

'모란꽃', '청실홍실', '금희의 오월'은 '5월 3부작'으로 불린다. 모두, 항상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며 시대를 노래했던 '오월광대' 고(故) 박효선(1954~1998)의 작품들이다.

1970년대부터 20년 넘게 광주를 지켜온 문화운동가이자 연극운동가였던 그는 황석영 등과 함께 지역문화운동을 시작했으며 윤상원 열사와 들불야학을 꾸려갔다. 1979년 전남대 연극반, 탈춤반 후배들을 이끌고 극회 '광대'를 창단한 그는 1980년 단원들과 항쟁에 참여, 홍보와 투사회보 제작 등을 맡았고 항쟁지도부 홍보부장으로 활동했다.

박씨의 많은 희곡 작품들은 그가 창당한 극단 '토박이'를 통해 관객들을 만나왔고 1989년 전남대 정문애 문예열성회 '민들레 소극장'은 그 전신 기지였다. 지난 1995년 공동 예술의 거리로 옮겨온 민들레 소극장은 끊임없이 오월극을 올리며 열정을 이어갔지만 열악한 극장 여건이 아쉽기는 했다.

올해 광주시 동구 동명동 전남여고 뒷편에 3·4층 공간을 얻은 단원들은 수개월에 걸쳐 직접 공사를 진행했고 15일 민들레 소극장 이전 개관 잔치를 연다. 새로운 공간



광주 동명동에 새롭게 문을 연 극단 '토박이'의 민들레 소극장 로비에는 고(故) 박효선을 기억하는 작은 갤러리가 마련돼 있다.

에서 오월극을 꾸준히 올리고 동시에 많은 이웃들과 함께 더 많은 흙씨를 뿌리겠다는 각오를 함께 담은 행사다. 이날은 또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박효선 전집 출판 기념회'도 함께 마련하며 개관 기념작으로 '모란꽃'을 무대에 올린다.

12일 '모란꽃' 첫 공연을 앞둔 4층 공연장은 쾌적한 관람 환경이 눈에 띄었다. 긴 벤치 형태로 양쪽에 마련된 150석의 좌석과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무대가 인상적이었다. 예전 극장은 천장이 낮아 관람객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공연장은 층고가 높아 무대에 집중하기 좋아졌다.

3층 로비는 토박이와 박효선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작은 갤러리로 꾸며졌다. '금희의 오월', '가물치 왕자' 등 공연 관련 자료들이 전시돼 있고 박효선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도 판넬도 전시했다. 또 토박이와 박효선 관련 영상을 상영할 대형 TV와 서기도 마련해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도 갤러리를 꾸밀 예정이다.

같은 날 극장에서는 황광우씨를 중심으로 한 박효선 전집 출간 위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 제작한 '박효선 전집(전 3권)' 출판기념회도 갖는다.

1권에는 황광우의 글 '박효선의 고뇌'와 '금희의 오월', '청실홍실' '그들은 잠수함을 탔다' 등 오월극, 마정화의 평론글 '빛으로 만들어낸 빛의 세계'가 실렸다. 2권에는 '시대극'이라는 타이틀로, 세상과 항상 마주했던 박효선의 작품들을 실었다. '함평 고구마', '김삿갓 광주 방랑기', '부미방', '딸들이 일어나라' 등이다. 또 소설가 임철우의 '친구를 추억함', 오월 연극으로 토박이와 인연을 맺은 오수성 교수의 '연극에 미친 사람 박효선' 등의 글과 박씨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일기와 수기를 담았다.

3권은 그를 추억하는 이들의 글이다. 김명곤·리명환·김영학·박문옥·임동환·조진태의 글과 함께 토박이 단원들의 '무대 위에 핀 민들레, 그대 가는가'를 만날 수 있다.

연극 '모란꽃'은 개관식보다 앞서 12일부터 22일(수~금 오후 7시, 토 오후 3시) 민들레 소극장에서 이전 기념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임해정씨를 비롯해 박정운·김수현·박유정·박세훈·송은정씨가 출연하며 연출은 박정운, 무대미술은 허달용씨가 맡았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222-6280.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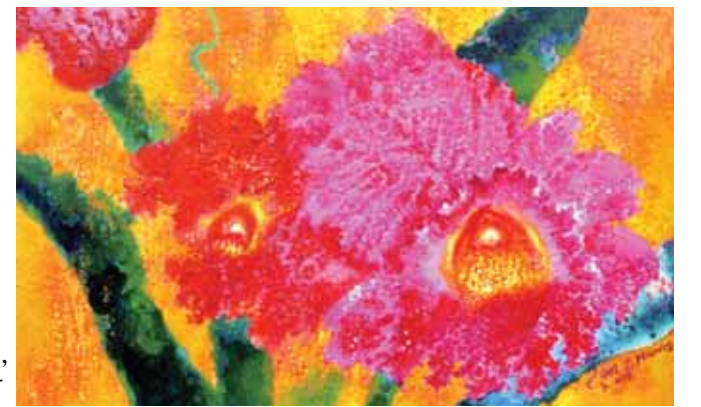


3층 로비에 전시된 토박이의 공연 작품들.



150석 좌석을 갖춘 민들레 소극장. 12일부터 24일까지 오월극 '모란꽃'이 공연된다.

## 욕망을 비추는 꽃...최재영 개인전



▶'아이리스-레드'

### 13~19일 DS갤러리

순수한 어린이이 눈을 통해 기성세대를 바라봤던 최재영 작가가 13~19일 DS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 '자연-기원'에서 꽃을 소재로 한 신작을 선보인다.

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수평으로 굽은 붓질에서 탈피해 물감을 뿌리고 찍는 '점묘화풍'으로 작업한 '아이리스' 시리즈 등 작품 약 20점을 공개한다.

작가는 무수한 점들이 모여 꽃형상을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지는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아이리스 꽃을 소재로 택한 이유는 조형적 아름다움 뿐 아니라 '무지개 여인'을 의미하는 이름에서 나타나듯 신비의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최씨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조지아 오키프가 몰입했던 소재이기도 하다.

'아이리스-레드', '블루 아이리스' 등은 꽃 중앙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빛 가득한 우주처럼 미지의 세계가 떠오른다. 짙은 색으로 채색한 테두리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희미한 색채를 사용했다. 작품 소재는 바뀌었지만 담고 있는 메시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과거 어린이이 그림처럼 꽃 연작도 다양한 인간 욕망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life' 시리즈도 넓게 펼쳐진 꽃잎의 복잡한 구조를 통해 우리사회에 산재한 끝없는 욕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최씨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영국 윈블던 아트칼리지를 졸업하고 개인전을 23회 여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 광주미술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광주비엔날레 자문위원, 광주국제아트페어 운영위원으로 재임 중이다. 문의 062-233-3919. /김용희기자 kimyh@

## 광주대 주얼리디자인학과 졸업작품전

### 17일까지 금호갤러리

광주대학교 주얼리디자인학과 학생들이 4년간 갖고 닦은 보석가공 솜씨를 선보인다. 17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졸업작품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4학년 18명이 참여해 은판, 동판 등을 생활용품과 결합시킨 작품을 선보인다.

김근태 학생은 등으로 제작한 칼 작품 '구성원'을 출품했다. 손잡이를 톱니바퀴 모양으로 만든 점이 특징이다. 김수진 학생은 은으로 만든 머리띠 '꽃밭을, 머리에' 작품을 전시한다. 꽃잎과 줄기를 세밀하게 가공해 장식성을 더했다.

남인성 학생이 제작한 비녀 작품 '소원해진 사랑'은 금과 은, 진주를 재료로



김수진 작 '꽃밭을, 머리에'

사용하며 현대적 디자인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19일부터 25일까지는 서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1984년 상업디자인학과로 출발한 주얼리디자인학과는 2017학년도부터는 패션·주얼리학부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문의 062-360-8437. /김용희기자 kimyh@

황영성·박석규·송 용·박동민·박종수·신동원·박성현·전희진·정운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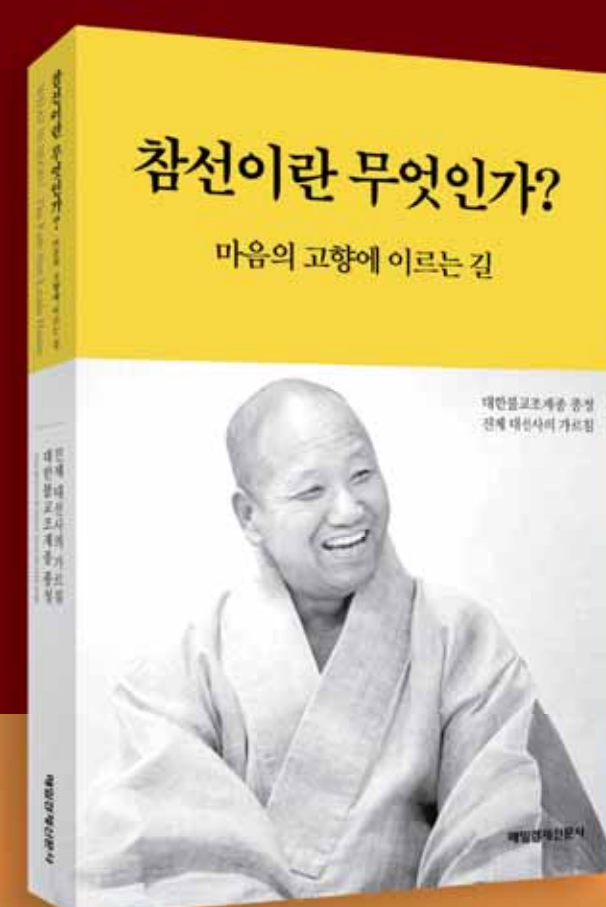
### 원로작가 9인 특별전

기간: 2016. 10. 11(화) - 11. 11(금)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박물관갤러리  
☎(062)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대선사가 한글과 영문으로 전하는

# 삶의 지혜와 참된 행복의 메시지

“사람들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요,  
말이 여위면 털이 깊이로다.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모든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밝히는 참선수행을 합시다.”



“이 책은 오늘 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소중한 양식을 부담 없이 얻을 양서라 아니 할 수 없다.”

-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진제대선사는 한국대선사로부터 부처님법을 인가받아 경허-해월-운봉-한국대선사로 전해 내려온 정통법맥을 이음, 석가여래부촉법 제79대법손. (현재)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지음 | 진제 대선사 | 가격 | 16,000원 | 팔공총림 동화사 | 053)980-7903 | 해운정사 | 051)746-2256